

목포권

무안군청 앞 시가지 공동화 심각

텅 빈 주택·상가 30여곳 10년 이상 방치 무안 우회도로 개통으로 상권 침체 가속

무안군청 앞 시가지의 상가와 주택 상당수가 10년 이상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엔 무안 우회도로 개통 여파로 무안읍을 지나는 교통량까지 80% 이상 감소, 이 일대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상가의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무안군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3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내 각 지역에서 도로개설과 주차장, 항토클리너 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도로균형 앞 시가지에는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업을 벌이면서도 균형 앞 시가지에는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상동리 이장 최성환(59)씨는 "마을 안길을 넓혀려고 해도 외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 정부가 지자체 보상을 해주는 도로를 넓힐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가만 군청 앞마을이 폐촌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계 당국이 이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 군청앞 일대에 상가와 주택 등 30여채가 빈 채로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현재 무안군청 앞 시가지에는 30여 개의 상가와 주택이 10~20여 년째 빈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들 빈 건물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는 것은 물론 개까지 사육되고 있어 여름철이면 악취가 풍기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처럼 무안 군청 앞 마을이 폐허로 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에 이 일대에 대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청 앞마을인 성동리의 경우 마을 안길 500여m 도로가 폭이 2m로 비좁아 소형 차량도 통행하기 어려워 주차지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특히 지난 9월 무안읍을 우회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무안군청 앞을 지나는 교통량이 무려 80% 이상 감소하는 바람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주변

목포지역 출근 시간대 운행 승용차 10대 중 6대는 '나홀로 차량'

푸른목포21협의회 조사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목포지역 출근 차량 10대 중 6대가 '나홀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목포21협의회가 최근 하당 백

년로(기동병원) 1개지점과 가톨릭회관(목포 MBC앞) 1개 지점에서 출근 시간대(오전 8시~9시)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차량(트럭, 버스, 영업용차량 제외) 1천551대 중 66%인 1천46대가 나홀로 차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근시간 도로혼잡 및 대기오염가중, 에너지 낭비는 물론 주차난과 교통체증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푸른목포21협의회 관계자는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것은 에너지절약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나홀로 차량 비율이 단 10%만 감소해도 교통 혼잡피해와 대기오염 피해액 등 연간 5천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희기자 lyc@

목포지역 출근 시간대 운행 승용차 10대 중 6대는 '나홀로 차량' 푸른목포21협의회 조사

무안양파 무안백련차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무안군 영농조합법인 설립 연말까지 최종등록 마무리

모자이크에 꿈과 희망 담았어요 법무 목포보호관찰소 미술치료 청소년 순화교육

/지역 단신/ 학생 276명 내고장 현충시설 탐방 목포대 '혁신 박람회' 대대적

현대인의 웰빙식품 오디 녹산오디 4호 녹산오디 팩 (30포, 60포, 100포) 녹산오디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신축, 각층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금보부동산컨설팅 신당매매 건물매매 건물매매

민음공인중개사 청단지역, 상암동, 월계동, 상가임대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중개 상무지구 시청앞 한국은행우편원

대인부동산컨설팅 퓨전 레스토랑 임대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주)옥션코리아 법원 경매 222-8446 (법원경매매입할당)